

로겔 좇목팸의 실체를 알아보자 .araboja

○○

대충 로겔 좇목팸은 18년경 말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18년경, 한창 전체주의와 혁명의 뽕이 차오르고 있던 뽕파라토르롬 제 2 인터겔러리에서 한 무리의 혁명뽕 좇목팸이 등장했다.



그 좇목팸의 수장은 Losa Luxemburg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유명한 제2 인터겔러리의 고정닉이었다. 아리따운 외모와(인터겔러리에 는 뽕 없던 여자 고정닉이었다.) 그 외모에 걸맞는 든든한 사상을 갖추어 호감고닉 소리를 들었지만, 이전부터 반전주의 좇목팸을 이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정닉이었다.

사실 그녀는 몰래 '유니우스'라는 유동닉으로 제 2 인터겔러리에서 분탕질을 이끌고 있었으며, '스파르타쿠스

분트'라는 단톡방으로 카이저 몰래 친목질을 돌리고 있었다.

한때는 그녀를 호감고닉이라고 칭송하던 고닉중 하나인 베른슈타인이 공개적으로 인터갤러리에서 그녀의 좇목팸을 폭로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미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의 교황'이라며 공개친목질을 저지르던 고닉 카우츠키가 레닌과 유동불세비키들에게 후드려맞은 사건이 있고 난 직후였기때문에 갤러리의 분위기는 더더욱 싸늘해졌다.



결국 제 2 인터갤러리는 수 차례 '참전VS반전'떡밥으로 불타오르고, 한창 땅따먹과 전체주의뽕, 엘랑뽕, 카이저뽕이 차오르고 있었던 ~~임페라토르~~ 롬 제 2 인터갤러리의 완장진들은 결국 혁명분당들의 떡밥에다가 계속 장작을 지피는 고정닉 로자와 켄트킵 등의 좇목팸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하였고, 쫓겨난 이들은 고닉단톡방이던 '스파르타쿠스 분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이너 갤러리를 파게 된다. 그 갤러리가 바로 현재의 KPD갤, 즉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였던 것이다.



한때 반전떡밥과 페미떡밥, 그리고 공산딱대 밈, 월간 스파르타쿠스 사업으로 확장되어가던 로자갤은 곧 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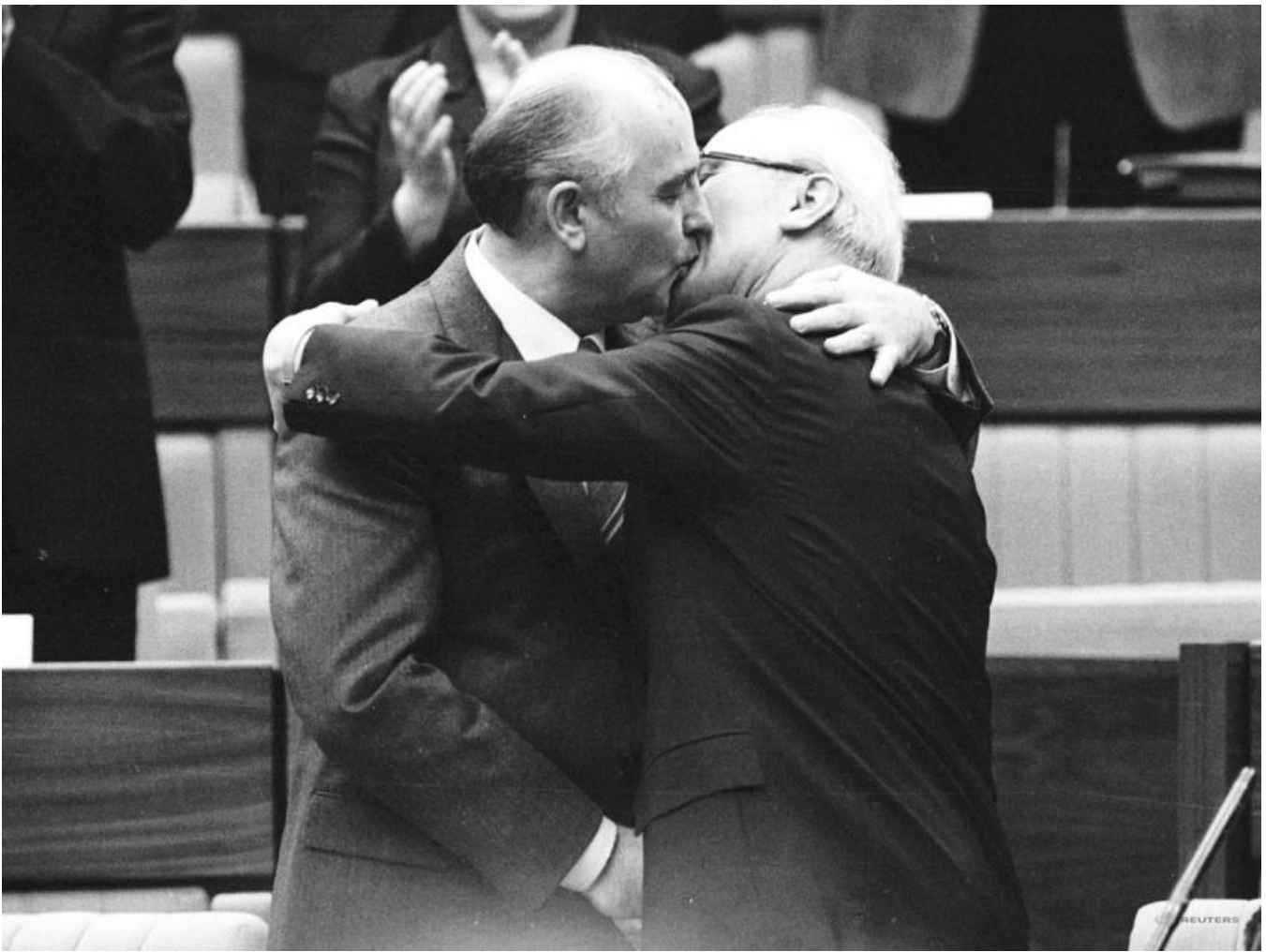
인터갤러리의 분탕이 식자 다시 인터갤러리로 돌아간 독립진보정치사민갤러리로 분화되 화력이 식었으며, 자유투사들과 낙지갤, 우흥갤등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이 첫 주먹이자 좃목팸의 수장이었던 로자 언냐와 파딱 리프크네이트가 잦은 자유투사들의 비난성 개머리판드립에 지쳐 탈갤을 선언하면서 로갤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그러나 켄트키 등의 고닉들은 계속해서 갤질을 이어나간다.)



그 이후 로자갤의 주먹은 초줄-무직-군필 컨셉을 잡고있던 에른스트 텔만 (닉네임 잉클 테디베어)가 맞게 되었다. 그는 실천활동을 강조하면서 데모나 집회 선전도 잘하고 활달한 이미지로 갤러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낙지갤에서 가끔 좌파파시즘 얘기 하러 오는 애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하는 등 유동들에게도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가 주먹을 맡는 동안 로자갤은 실북갤 고순위에 오르는 등 두번째 부흥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믿었던 주박 에른스트 텔만 마저도, 옆의 제3 인터갤러리의 폭압적 주박인 스탈린과 좇목질을 하고, 고닉들 몰래 스탈린이랑 친한 애들에게만 파딱 제의를 넣는 등 좇목질을 일삼아 까이기 시작했다. 텔만은 곧 주박을 사임하고 이후로 여러 고닉들이 주박을 돌아가면서 맡았지만, 로자가 탈깁하기 전까지 같이하던 고닉들은 전부 탈깁선언을 했고, 이미 로깁은 스탈린 후빨의 장이 되어버린것이다. 이후 유입들이 계속 들어오며 실북깁 순위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전에 활동하던 고닉들은 다들 떠나거나 진보정치사민깁로 돌아가버렸다.



(스탈린겔과 로자겔 주박들의 끔찍한 좇목질의 현장)



(수많은 유동닉들이 스탈린주의 좇목팸이 되어버린 로깅을 탈출하여 진보정치사민깁로 도망치고 있다)

결국 스탈린주의 좇목팸은 에리히 호네커 깁러리로 탈출하게 되고, 진보정치사민깁과 로자깁은 양깁간의 합의를 거쳐 통합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결과는 진보정치사민깁이 우세한 공존의 형식이 되었다고 한다.

제 4인터깁러리의 트로츠키분탕통피들은 아직도 그 두번의 좇목사건들을 잊지 못해서 각 깁러리에 분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스탈린깁러리 좇목팸이 KT통피들을 숙청한 사건을 말함)